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대인, 김호령, 박정수.

3色 신형 엔진…KIA 5위 질주

스피드 김호령 허를 찌르는 주루…수비 범위 리그 톱 수준

파 워 황대인 프로 5경기만에 홈런…김광현 상대 멀티안타

배 짱 박정수 넥센 박병호 연속 삼진…"강타자 승부 자신"

'호랑이 군단'의 유쾌한 승리 행진에 겁없는 신인들의 성장기가 더해지면서 KIA 팬들은 즐겁다.

5위 수성을 목표로 한 KIA의 질주에는 '아기 호랑이' 3인방이 있다. 말 그대로 3인 3색이다. 빠른 발로 외야를 호령하고 있는 대졸 신인 김호령, 자신감 넘치는 한방으로 눈길을 끈 고졸 루키 황대인 그리고 꽃외모와는 다른 강한 심장으로 마운드의 샛별이 된 또 다른 고졸 신인 박정수. 스피드, 힘, 배짱을 갖춘 복덩이 루키 3인방이다.

'형' 김호령은 어느새 외야의 핵심 멤버가 됐다. 빠른 발을 앞세워 리그 톱 수준의 수비 범위를 과시하고 있는 김호령은 공을 쫓는 타고난 센스까지 갖추면서 연일 호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주루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김호령의 발 앞에서는 2루수 플라이가 희생 플라이가 된다. 허를 찌르는 3루 도루와 홈 질주도 보여줬다.

극적인 순간의 타격도 눈에 띈다. 김호령의 득점권 타율은 0.364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타율이 0.230, 여기에 15개의 볼넷을 골라낸 것에 비해 73차례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극과 극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김호령은 "타석에서 마음만 급했다. 타이밍이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발을 들지 않고 타격을 하는 것으로 바꿨다. 수비는 자신 있고 재미있다. 수비 나갈 때 공격에서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더울 때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열심히 뛰고 차분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장 늦게 1군 무대에 합류한 황대인은 '한방'으로 자신을 어필했다.

1군 데뷔 경기에서 바로 데뷔 안타를 때려낸 황대인은 첫 선발 출장날에는 SK의 괴물 김광현을 상대로 멀티 안타를 기록하는 등 3타수 3안타를 만들었다. 프로 5번째 경기 만에 마수걸이 홈런을 쏘아올린 황대인은 지난 18일 SK와의 경기에서는 7회 2사 만루에서 대타로 나와 초구를 공략해 적시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선배들도 엄지 손가락을 내미는 타격 재능과 힘, 여기에 두려움 없는 스윙이 황대인의 매력이다. 캠프 삼진왕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도 "무조건 내 스윙으로 자신있게 하겠다"고 외쳤던 남다른 신인. 부족했던 수비로 1군 무대를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다.

황대인은 "보이는 대로 내 스윙대로 타격을 하는 편이다. 1군에 와서 야간 경기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처음 타석에 나갔을 때 공이 잘 보였다. 수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짱 하면 사이드암 박정수도 빼놓을 수 없다.

호리호리한 외모와는 다른 근성과 배짱으로 선발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줬다. 12경기에 25이닝을 소화한 박정수의 평균자책점은 3.24. 8개의 볼넷을 내줬지만, 리그 최고의 강타자 박병호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17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경험을 통한 배움의 속도도 빠르다.

박정수는 "처음에는 맞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전력으로 가운데를 보면서 던졌는데 욕심내서 어렵게 던지다 보니 결과가 좋지 못했다. 전력으로 과감하게 승부를 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타석이 꽉 차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강타자들과 승부를 하는 게 재미있다. 과감하게 씩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의미있는 3 출루 추신수

무안타 3사사구…결승 득점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볼넷 두 개와 몸에 맞는 공 하나로 3차례 출루했다.

강정호는 2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메이저리그 홈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1타수 무안타 3사사구를 기록했다.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타석에서 차분하게 공을 골라 후속타자에게 타점 기회를 제공했다. 2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애리조나 좌완 선발 로비 레이와 맞선 강정호는 시속 133㎞ 슬라이더에 왼쪽 발을 맞았다. 올 시즌 16번째 몸에 맞는 공이다. 강정호는 프란시스코 세르벨리의 중전안타 때 전력 질주해 3루까지 도달했고, 마이클 모스 타석에서 나온 로비의 폭투로 홈을 밟았다. 시즌 46번째 득점이다. 피츠버그는 션 로드리게스와 그레고리 폴랑코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3-0으로 앞서갔다.

강정호는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레이의 시속 124㎞짜리 체인지업을 공략했지만 3루 땅볼에 그쳤다. 6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서 레이의 유인구를 참아내 볼넷을 얻었다. 마지막 타석에서도 강정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3-0으로 앞선 8회말 무사 1·3루에 등장한 강정호는 애리조나 우완 불펜 잭 고들리와 상대해 또 볼넷을 기록했다. 강정호의 볼넷으로 만루 기회를 잡은 피츠버그는 페드로 알바레스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가점을 뽑았다. 피츠버그는 선발 J.A. 햅이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치고, 불펜진이 3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 4-1로 승리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85에서 0.284로 조금 떨어졌다. /연합뉴스

4년 연속 100안타 -3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조금씩 올라오는 타격감으로 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추신수는 20일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 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볼넷 1사구 2득점을 기록했다.

16일 탬파베이 레이스전부터 시작한 연속 안타를 5경기로 늘린 추신수는 394타수 97안타로 시즌 타율 0.246을 유지하며 4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에 3개 차로 다가섰다.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이날 유일한 안타를 뽑아냈다. 1회말 1사 후 시애틀 선발 마이크 몽고메리를 상대로 깨끗한 좌전 안타를 뽑아 출루했다. 애드리안 벨트레의 볼넷으로 2루로 진루한 추신수는 미치 모어랜드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선취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2회말 2사 1루에서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내 또 1루 베이스를 밟았으나 이번엔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다.

4회말 2사 1루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7회말 첫 타자로 나와 몸에 맞는공으로 세 번째 출루를 기록했다. 3-2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텍사스는 계속된 1사 1루에서 모어랜드의 투런 홈런을 시작으로 세 타자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7-2로 승리했다.

텍사스 선발투수 데릭 홀랜드는 131일 만의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4월 11일 휴스턴전에서 1이닝만 던지고 어깨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던 홀랜드는 이날 6.1이닝 2자책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추신수는 8회말 1사에서 삼진으로 물러나며 마지막 타석을 마쳤다. /연합뉴스

우즈 "가을에도 경기 하고파"

PGA 시즌 마지막 윈덤 챔피언십 출전

우승이나 단독 2위 해야 27일 PO 진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타이거 우즈(미국)가 시즌을 더 이어가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우즈는 페덱스컵 랭킹 187위로 밀려 125위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플레이오프 티켓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일(이하 현지시간) 개막하는 정규시즌 마지막 대회 윈덤 챔피언십에 출전한 우즈는 개막 하루를 앞두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세지필드 골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즌을 이어가고 싶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플레이오프에 나가 더 많은 대회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즈는 최근 출전한 10개 대회에서 네 차례 컷탈락했고 한차례 기권했다. 80대 타수를 친 라운드도 세 차례나 됐다.

우즈는 이번 주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단독 2위를 해야 27일 열리는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 대회에 나갈 수 있다.

이처럼 힘든 상황을 알고 있는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일찍 시즌을 접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즌이 끝난 뒤에도 초청을 받고 출전하는 대회 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즈는 대회를 앞두고 열린 프로암에서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의 스타플레이어 크리스 폴과 동반 라운드를 했다.

/연합뉴스

"조던은 NBA 사상 최고 선수"

샤킬 오닐 18년만에 방한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샤킬 오닐(43)이 한국을 찾았다.

1997년에 이어 20일 두 번째로 방한한 그는 "전성기의 마이클 조던와 전성기의 르브론 제임스이 붙으면 조던이 압승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스포츠 용품 브랜드 홍보차 방한한 샤킬 오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슈가 된 마이클 조던과 르브른 제임스의 1대1 가상 매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조던은 50대이고, 제임스는 30대로 젊지만 그래도 난 마이클이 역대 최고 선수라 생각한다"고 조던을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했다.

자신을 NBA 역사상 두 번째 위대한 센터로 자평한 그는 선수 시절 상대하기 어려웠던 선수로는 "아무도 없다(Nobody)"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다음은 샤킬 오닐과의 일문일답.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5명의 선수를 꼽는다면.

▲마이클 조던, 줄리어스 어빙, 래리 버드, 매직 존슨, 빌 러셀이다.

-역대 센터 포지션 중 본인은 몇 위라고 생각하나. 가장 뛰어난 5명은.

▲빌 러셀, 나 자신, 압둘 자바, 윌트 체임벌린, 하킴 올라주원이다.

-최근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의 1대 1 가상 매치가 이슈가 됐다.

▲전성기 시절 마이클 조던과 전성기의 르브론 제임스가 붙으면 조던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조던은 50대이고, 제임스는 30대로 젊지만, 그래도 난 마이클이 역대 최고 선수라 생각한다.

-상대 선수 중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선수는

▲아무도 없다.(Nobody)

-과거 결승에서 하킴 올라주원에 4연패 스윕을 당했는데 기분은.

▲당시 올라주원을 상대했을 때에는 노련미가 부족해서 패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많이 배워서 이후로는 5번의 결승에 올라 4번 우승해서 만족스럽다.

-체격적으로 부족한 동양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타고난 신체 조건이나 당장의 운동 능력보다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다. 무술 같은 것은 아시아 사람들이 잘하는데, 신체적인 특성을 잘 살리면 잘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